

# TLA(현대 스페인어 번역본/쉬운 스페인어 성경)

## -불필요한 매개체가 없는 성경-

에디시오 산체스\*

이남섭 번역\*\*

### 창세기 1:1-2:3

#### 세상의 창조

- 1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했을 때,
- 2 땅은 형태가 없었으며,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다는 완전한 어둠으로 덮여 있었으나,  
바다의 표면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었다)

#### 창조의 첫째 날

- 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기를 원한다!”

곧 빛이 생겼다!

- 4 하나님께서 빛의 아름다움을 보시자,  
빛을 어둠에서 분리하셨다.
- 5 그리고 빛을 “낮”이라 불렀다.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컨설턴트

\*\* 한일장신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사회학

위 TLA(쉬운 스페인어 성경) 번역 구절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의 한 예이다. 이 번역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중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다수의 성인들, 가령, 기능적 문자해독자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성인들 중에는 스페인어가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 원주민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번역 프로젝트는 어린이를 위한 번역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번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단지 성서 번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문학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어린이를 위해 좋은 문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만약 우리들의 번역이 언어학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이 성서 번역은, 다른 어린이 문학과 마찬가지로, “오직 어린이만”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는 안 된다. 비록 이 번역이 9-11세의 어린이를 위해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번역은 유아, 혹은 어린이만을 위하여 재구성된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번역은 **어린이를 위한** 성서이지 어린이가 성서는 아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번역된 모든 성서가 그러하듯이, TLA도 성서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에 충실한 번역이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관이 세운 기준과 원칙을 따른다. 번역 본문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본문과 같은 언어(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하였다. 그러나 이 번역은 어린이가 그의 수준에서 메시지의 다양한 측면(인지적, 정서적, 영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번역본은 시중에 출판된 기존의 어떠한 스페인어 번역본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이 번역은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은 어린이 문학의 특징적 요소들과 근대 언어학이 이룬 새로운 성과 그리고 현대 성서 해석학이 이룬 새로운 성과들을 반영하였다.

이 논문의 서두에 제시한 창세기의 본문들은 앞에서 말한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안에는 성서 본문의 의미가 존중되어 있고, 저자의 문학적 목적과 그가 원래 청취자에게 주고 싶던 자극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번역은 시적 구조를 사용한다. 이 번역에서 선택된 단어들은 조잡하지가 않다. 문장의 구조는 간단한 시적 논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번역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사실상 문자를 대체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과 문자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기술된 글보다는 구술 대화에 더 많이 의존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즈음하여, 성서 보급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서 읽기는 퇴조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스마트(James Smart)의 말을 인용한다면, “교회와 기독교 가정에서 성서를 전혀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대면하는 것이 긴급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포스트모던 시대 남녀의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선교적 전망은 통합적 방식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 문학을 즐기는 최고의 형태, 문학의 혜택을 받기 위한 최고의 형태는 먼저 글을 읽고 그 다음 뇌로 인식하는 것이라(또는 쓰인 글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 다음 뇌에서 인식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자해독율과 독서에 대한 세계적 통계는 앞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책 읽는 독자의 수가 갈수록 더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독자들은 단지 시각만으로 읽지 않는다. 오늘의 독서는 입과 청각을 동반한다.

번역은 우리들의 성서 텍스트가 독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들의 번역 목적은 인쇄된 성서를 아주 큰 목소리로 읽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갈수록 청각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반 청중에게 가까이 가려한다.

TLA 번역본은 이 목적에 부응하려고 한다. 그 우선적 이유는 우리의 첫 번째 청중이 어린이라는 점이다. 우리 어린이는 그들 인식의 대부분을 청각으로 받아들인다. 어린이의 독서 수준으로는(이것은 그들뿐만은 아니다) 오직 시각으로 읽히는 것으로 만들어진 텍스트들을 큰 소리로 읽을 수 없다. 어린이 독자는 일반적으로 구두점의 의미를 무시한다. 그들은 복잡한 문장과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한 문장을 다 읽거나 듣기 전에 문법적 요소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짧은 문장을 원한다; 쉬운 문장; 자유스러운 형태, 독서에서의 리듬과 억양; 소리와 개념의 반복; 활동을 가리키는 추상적 명사 대신에 구체적 동사들; 사용된 대명사가 정확한 명사로 청중에게 전달되도록 생략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이미 알려진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것보다 우선하는 것; 사건들을 연대기적으로 편집하는 것; 듣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잘 읽는 것; 인쇄된 페이지의 공간을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 시는 시처럼 보고 듣게 하고, 그리고 산문은 산문처럼 보고 듣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제 차분하게 지금까지 지적된 요소들을 살펴보자.

### 1. 구두점은 표시는 있으나 들을 수 없다.

1960년의 수정판인 Reinar Valera판(역자 주: 이하 RV60)에 있는 마태복음 2:9-10의 예를 보자.

...어린이. 별을 보자...

만약 어떤 사람이 구두점의 표시를 존중하지 않고 높은 목소리로 읽는다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들을 것이다: ...어린이가 별을 보자...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TLA는 동일한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별은 어린이가 있던 집 앞에서 멈추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행복해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약 독자가 어린이 다음에 있는 마침표를 존중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장의 시작은 잘못된 의미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시편 119:9에서 다른 예를 발견한다. 새 예루살렘성서(NBJ)는 그럴듯한 질문과 대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어떻게 청년은 그의 행동을 정화시킬까?  
당신의 말을 관찰하면서

만약 독자가 시행의 마지막에 있는 질문의 표시를 존중하지 않으면, 청중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어떻게 청년은 당신의 말을 관찰하면서 그의 행동을 정화시킬 것인가? TLA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오직 당신의 말에 복종하면서  
청년들은 그들의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 번역에서는, 상투적 질문을 회피하였으며 시행의 순서를 바꾸었다. 번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떠한 구두점의 표시도 할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예는 사무엘하 2:1에서 발견할 수 있다. RV60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리고 야웨는 그에게 응답하였다: 올라가라. 다윗은 다시 말했다.

이와 반대로, TLA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한다:

분명히 너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주장하였다….

## 2. 단순하고 분명한 그러나 직접적인 문장들

RV60의 로마서 1:1-7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장으로 알려져 있다(이것은 바울의 형식이었고, 그리스 문장은 그것을 허용하였다!). 이 문장에서는 첫눈에 기본 동사와 직접보어 그리고 수취인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가 되도록 부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성스러운 성서의 예언자들 앞에서 이미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 가문에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성령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의 은총을 받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순종을 하게 하는 제자직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예수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성자가 되리라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이자 예수그리스도의 주님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청중은 단지 기본적 문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작은 절과 종속된 문장 또는 혈연적 문장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LA는 이러한 구절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2-4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예언자들은 성서에서 이미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서 세상에 오셨다고 우리

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5 예수님은 나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내가 그의 종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를 통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6 당신들은, 로마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몇몇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를 이루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7:20에 있는 다음의 예를 보라. RV60의 번역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예수님을 문장에 끼워 넣어야 한다:

“바리새인은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가.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미리 경고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나 TLA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장을 편집한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언제 하나님은 여기를 다스리기를 시작하는가?

예수가 응답하기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혼돈하기 쉽고 복잡한 또 다른 번역은 RV60의 마태복음 27:63이다.

각하, 어떤 거짓말쟁이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삼 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 번역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한편으로, 이 문장은 예수가 거짓말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청중은 거짓말쟁이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들을 것이며, 즉 쓰인 본문에는 마침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TLA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

각하, 이 거짓말쟁이 예수가 아직도 살아 있을 때 “나를 죽인 지 삼 일 후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3. 대명사 또는 동사는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가?

성서 본문의 번역에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대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 또는 변화된 동사와 명사형 동사 사이의 관계이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 사이에도 생략문이 사용된다. 다시 말해, 동사를 가리키기 위한 대명사의 사용과 동일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능한 명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RV60과 같은 전통적인 성서 번역에서 청중은 종종 이 문제에 직면한다. 가장 어려운 사례 중의 하나가 히브리서 11:4이다. 이제 전통적인 번역을 주목해 보자:

믿음의 사람인 아벨은 가인이 바친 것보다 더 귀중한 희생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정당한 번제를 바친 증인이 되었다: 그를 위해 말하면서 죽었다.

이 번역에서, 동사 “죽다와 말하다(3인칭)”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주체로 삼으며, 가인과 아벨에 앞선다. 현명한 독자는 이러한 동사들은 아벨을 가리킨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독자 또는 본문의 청중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고 그를 위해 말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즉 마지막 것을 들은 것이 명사이다. TLA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가인보다 더 좋은 번제를 바쳤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벨이 정당하다고 고려하였고 그의 헌신을 받아들였다. 비록 아벨이 이미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분명하고 함축적인 정보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분명한 정보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형태 또는 편집의 실제에 기인하여,

동일한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는 본문에서 일어난다. 가령 역대상 1:43-54에서 보자:

**에돔의 왕들(43-54)**

이스라엘에 왕들이 있기 전에, 에사우의 선조들은 에돔에 살았으며, 여러 왕들이 있었다. 각 왕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다스렸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그 다음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상은 에돔의 왕들의 명단이다.

딘하바 도성을 다스린, 베오르의 아들 벨라,  
보스라 성읍을 다스린, 제라의 아들 요밥,  
테만 지역을 다스린, 후삼,  
아빗 도성을 다스린, 베닷의 아들 하닷,  
마스레가 성읍을 다스린, 사물라,  
유프리스 강가에 인접한, 레호봇 성읍을 다스린, 사울,  
아코바르의 아들 바알-하난,  
파우 도성의 하닷,

파우 도성의 하다의 부인은 메에타벨이라 불렸으며, 마트레드의 딸이자 메삽의 손녀였다.

아빗 도성의 하다는 모압의 전투에 싸울 때 마디안을 굴복시켰으며 그가 죽은 후에 에돔 사람들은 다음의 왕들을 가졌다.

탐나  
알바  
제테트  
오홀리바마  
엘라  
피논  
케냐스  
테만  
딤사르  
마기디엘  
이람

다른 경우에는, 함축적인 정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독자 또는 청중이 문장 또는 문장의 전체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될 때 일어난다. 누가복음 2:1과 열왕기 상 1:5-7에서 그 예를 살펴보자.

## 누가복음 2:1

## RV60

모든 사람은 등록하라는 아우구스토 세사르의 칙령이 선포된 것이 그 당시였다.

## TLA

예수가 태어나기 조금 전에,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토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였다. 즉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 열왕기상 1:5-7

## RV60

따라서, **하기트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반역하였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전차도 만들고 기마병도 만들고 마차 앞에 50명의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다녔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매일 그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도 한번도 슬퍼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그는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 그는 압살롬 바로 아래 동생으로 태어 났다. 그는 **세르비아의 아들 요압**과 협약을 하였고 그리고 사제인 아비아트라와도 확약을 받았으며, 그 협약은 그들이 아도니아를 돕겠다는 내용이었다.

## TLA

**다윗과 하기트에게서 난 아들인 아도니아**는 용모가 아주 출중한 청년이었다. 그는 그의 형 압살롬 보다 조금 뒤에 태어났다.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왜 그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고 한번도 나무라거나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여 아도니아는 그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 시작하였다. 전차 부대와 기마병과 그를 경호할 50명의 친위대를 준비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세투이아라고 불리는 여자의 아들인 요압**과 협정을 맺었으며 그는 군대의 책임자였다. 또한 그는 사제 아비아트라와도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두 세력의 지원을 확보하였다.

## 5. 논리적이고 연대기적인 문장 작성 순서

성서 저자들은 그들의 기록을 편집하고 구성하기 위해 모든 문학적 기술들을 사용하였다. 많은 경우에 연대기적 순서를 신중하게 바꾸거나 또는 어떤 사건의 설명에서 어떤 요소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근대 독자와 청중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현대의 독자와 청중들은 성서의 사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성서 저자의 문화와 너무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성서 사건의 구성요소들을 논리적 순서로 짜 맞추거나 또는 빈 공간을 메

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만약 어린이 청중 또는 문맹자일 경우 더욱 큰 문제이다. 이제 두 가지 예를 살펴보자. 하나는 구약에서,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살펴보자. 이들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RV60과 TLA번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TLA는 설명된 사건의 요소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편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RV60은 히브리 본문(창 26:1-6)의 번역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 시기에 (a) 모든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 있었을 때 일어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다. (b) 이로 인해 이삭은 게라르로 갔다. 거기에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났으며 그에게 말하기를: (c)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곳에 남아라 그리고 (d) 이 나라에 계속해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e) 이 땅의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외에도 지상의 모든 국가들은 너의 자손들을 통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복종하였고 나의 명령, 나의 계명, 나의 법, 나의 가르침을 완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f) 이삭은 게라르에 남았다.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 묻자, 이삭은 그가 그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그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삭은 그 지역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위 본문의 어떤 부분은 굵은 글씨로 강조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 다음의 설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알파벳 부호(a, b, c, d, e, f)를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이제 원문에 따라 사건들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편집될 것이다.

- (a) 가나안의 땅에 굵주림이 있었다.
- (b) 이삭은 그의 아내와 게라르로 여행하였다
- (c)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그가 보일 줄 땅에 남도록 명령하였다.
- (d) 하나님은 그가 게라르에 남기를 요구하였다.
- (e) 하나님은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다.
- (f) 이삭은 게라르에 남았다.

보다 준비된 독자에게는 생략된 정보를 유추하거나 또는 자연적 순서로 장면을 편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린 독자 또는 그 정보를 듣는 독자에게는 문장의 결과를 이해하기가 힘이 든다.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삭은 식량의 부족으로 움직여야만 했다.

그리고 비록 본문에는 **그가 게라르로 갔다고 말하지만** 그의 목표는 게라르가 아니고 이집트였다. 베테로테스타멘타리아(veterotestamentaria) 역사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 장기간의 가뭄으로 인해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 이때, 전 주민들은 배고픔에서 도망치려고 이집트로 이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집트는 나일 강을 낀 비옥한 땅이 풍부하였으며, 따라서 비의 부족으로 인한 기근의 고통을 받지 않았다. RV60의 본문은 이집트에 대한 정보를 세 번째 장면에서 제공한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삭의 목표가 이집트라는 것을 유추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여행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유추는 어렵지 않다. 독자들은 이집트가 생존을 위해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 여기서 독자는 게라르가 목표가 아니라 경유지라고 이해한다. 본문의 나머지는 이삭이 처음과 마지막 순간에 게라르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가 이집트로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나머지 장면은 역사의 모든 꾸밈이 게라르(아비멜렉왕의 블레셋 땅)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다음의 구절을 읽는 것은 약간 난처해 보인다: **내가 너에게 말한 땅에서 살아라(2절)**. 현재 순서에서 보면, 이제 이삭은 게라르에 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기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 땅, 즉 게라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 모든 혼돈을 막기 위해, TLA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1-6 그 당시에 (a) 아브라함의 시절에 일어났던 것처럼,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식량이 부족한 시기가 있었다**. 식량의 부족은 너무나 심각하였고 (b) **이삭은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c)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d)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게라르로 가서 얼마 동안 있는 것이 더 좋다**.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고 모든 것을 축복하기를 약속한다. 이외에도 (e)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에게 복종하였고,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f) 이삭은 아비멜렉과 의논하기 위해 게라르로 갔으며 거기서 남았다. 그 지역의 남자들이 리브가에 대하여 물어볼 때, 그는 그녀가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지역의 남자들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그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론을 보자:

- (a) 가나안의 땅에 식량 부족이 있었다.
- (b) 이삭은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 (c)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 (d) 하나님은 그가 게라르에 남기를 요구하였다
- (e)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리라고 약속한다.
- (f) 이삭은 게라르에 남는다.

신약의 예는 마태복음 1:18-21이다. RV60은 그리스어 순서에 따라,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와 잠을 자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 임신이 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정직한 사람으로 그녀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와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하였다. 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너의 여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그녀 몸에는 성령의 아기가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기를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백성과 너의 죄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번역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정보는 천사가 요셉과 대화하기 이전에 주어진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요셉보다 먼저 그러한 소식을 전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는 요셉의 꿈에 천사가 출현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이 본문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순서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TLA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8-20 메시아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닌 한 처녀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함께 살기 전에, 그녀가 임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

는 사람이었다. 마리아를 전 마을 사람 앞에서 비난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약혼을 조용하게 파기하기로 결심하였다.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요셉아,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를 임신하게 한 것은 성령이니라. 21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는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 6.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번역에서, 번역자는 종종 본문을 성서 언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는 과제에 직면하거나 또는 현재의 수취인이 원저자가 최초의 수취인들에게 전하려 했던 동일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다시 말하면 번역의 충실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번역은 말씀과 언어의 문법적 형태를 재생산하거나 또는 원래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보다 형식적이고 문자적인 번역인 RV60은 독자들과 청중에게 번역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보가 요구되는 본문을 제시한다. 이것은 특히 은유 또는 언어학적 표현을 사용할 때 일어난다. 그 예를 잠언 30:20에서 볼 수 있다; RV60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부정한 여자는 이렇게 행동한다:  
음식을 먹고, 입술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

문자적 번역(RV60)은 부정한 여자는 식탁에서 좋은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청중이 이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메시지는 부정한 여자는 식탁의 예의와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이 점을 TLA의 번역에서 보자:

불성실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잠을 잔다,  
그리고 목욕하고 말하기를:  
여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 7. 포용적 번역본

이 번역본은, 그의 계획에서부터 의도적으로 포용적 언어를 사용한다. “포용적”이라는 언어의 의미는 단지 여성을 이제 더 이상 소외시키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언어와 단어의 사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룹과 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의미 또는 개념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왜곡된 표현 혹은 모든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성서 본문들

다음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TLA 안에 있는 포용성은 단지 언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또한 주석과 해석학에도 해당된다. 이 양쪽의 경우에서 TLA는 다른 스페인어 번역본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 번역본이 성서 본문의 새로운 독자와 새로운 청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 번역은 보다 믿음직하고 희망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번역은 덜 억압적이고 덜 배타적이고 덜 폭력적인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의 교육적 과정의 일부가 된다.

첫 번째, 이 번역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사람(hombre)”이란 단어를 혼돈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지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의 언어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전적 포용성은 스페인어가 영어보다 더 어렵다. 이를 위해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그룹을 의미하는 말투나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다.

두 번째, 이 번역에서는 본문의 문장 또는 담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걸맞는 제목을 사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예를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찾을 수 있다. RV60과 DHH(Dios Habla Hoy<오늘의 하나님 말씀>; 또한 **Version Popular<대중판>**으로 알려져 있음)번역본의 본문은 오직 여호수아와 그가 보낸 정탐꾼만을 제목으로 삼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읽어보면, 독자는 진정한 주인공이 라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TLA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본문의 제목을 정한다: **라합과 정탐꾼**. 우리는 신약의 사도행전 18:24에서 같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RV60과 DHH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지니고 있다: “아폴로가 에베소에서 설교하다.” TLA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프리실리아, 아킬라 그리고 아폴로**. 여기서 문장의 핵심은 아폴로가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접하는 과정이다. 프리실리아와 아킬라가 아폴로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1년 반 이상 동안 고린도에서 동고동락한 바울의 협조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베소의 초기교회는 바울교회의 네트워크

크에 참여한 또 다른 공동체를 구성한다.

세 번째, TLA가 주석을 통해, 기존의 스페인어 번역본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변화를 한 본문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고린도전서 11:3

RV60과 DHH는 “κεφαλή” 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머리”라고 번역하였다. 만약 바울의 서신 속에,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일어다의적(polisemico) 의미이다. 대부분의 독자와 청중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것은, 특별히 만약 그 사람이 열등하다고 고려되거나 또는 만약 그가 열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권위자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LA의 독자들은 “머리”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본문 8-9절의 상황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다; 창세기 2:21-22의 남자에서 출발한 여자의 창조이야기이다. 고린도전서 11:3은 권위의 사슬과 전혀 관계 없고 원천의 사슬과 관계가 있다. 바울의 사상에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창조 사건(고전 8:6)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임명을 받아 태어난 최초의 인간 창조물이기 때문에(창 2:7) 모든 인간의 머리이다. 결론적으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지금 나는 이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남자의 기원이고, 남자는 여자의 기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 (2) 고린도전서 11:10

SBU가 스페인어로 출판한 것을 제외한 모든 스페인어 번역본들은 그리스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즉 그의 머리에 대한 권위의 상징으로 번역한다.** 이 구절은, 여성이 주체라는 것뿐이지, “남편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DHH-EE는 이 단어에 대한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권위의 상징: 권위; 아마도 권위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남편이 행사하는 보호의 상징으로서 베일과 같은 것이다(11:5 각주f).** 이 의미는 가톨릭교회의 후원 아래 출판된 두 개의 현대어판에서 아직도 반복된다: 라틴아메리카 성서와 아메리카 성서가 그것이다. 이 두 현대어판은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종속의 상징/종속의 징조**”.

TLA의 새 번역본에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여자는 천사에 대한 존중심과 자신의 머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신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여자 자신이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성에게

머리를 덮으라고 권고하였다(아마도 모든 품위 있는 여성이 사용한 빗 또는 베일을 사용할 것, 15절을 볼 것). 10절은 여성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건을 강조한다. 여성이 그 자신의 머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다른 사람에게 뻔뻔한 여자로 보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적 단장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 8. 문학적 표현과 일치하는 문학적 양식

TLA 번역본에서는 성서 번역을 하나의 문학적 과제라고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만약 성서의 저자들이 그의 저작들을 문학적 보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작업을 하였다면, 왜 번역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각 성서 책의 문학적 스타일과 양식을 신중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쇄된 페이지뿐만 아니라 청취하는 글에서도 나타난다.

### 8.1. 이야기의 번역(욘 4:1-10)

1 요나는 아주 많이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부하들을 용서한 것에 대해 그는 아주 기분 나빴다. 2 그는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기도를 했다:

— 나의 하나님, 이미 나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고향에 있었을 때, 당신이 하리라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당신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능한 빨리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상처를 내나 당신은 거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하고도, 그 이후 당신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당신은 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었다:

— 이렇게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5 요나는 도시에서 나와 모든 것을 바라 볼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몇 개의

나무 잎들을 꺾고, 그것들을 섞은 다음 그리고 그 위에 나무 가지들을 놓아 초막을 만들었다. 초막 그늘 아래 앉은 다음 그는 도시에서 일어날 일을 기다리기 시작하였다.

6. 다른 한편, 하나님은 한 나무(역자 주: 박녕쿨 나무)가 태어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 나무는 성장하였고 잎과 가지로 뒤덮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가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요나에게 최상의 나무 그림자를 제공하였다. 요나는 이 나무에 너무나 만족해 있었다!

7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벌레가 다른 날 아침에 와서 그 나무를 갉아 먹게 하였다. 그 나무는 얼마가지 않아 곧 말라버렸다. 햇빛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주 뜨거운 바람을 보냈으며, 불쌍한 요나는 더위로 기절하고 말았다.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요나는 죽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다음과 같이 절규하였다:

— 계속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9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기를:

— 그 나무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 당연히 그렇습니다 고 요나는 대답하고- 그 나무 없이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10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 너는 네가 심지도 않았고 자라도록 노력하지 않은 나무를 위해 너무나 걱정한다. 어느 날 밤에 그 나무는 자랐고 그 다음날 밤에 죽었느니라. 내가 니느웨의 도시를 위해 걱정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사는 이 큰 도시를 위해 내가 염려하고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 8.2. 시의 번역

RV60의 형식적 번역에 있는 다음의 예를 봅시다.

우리의 침대는 꽃으로 되어 있다.  
우리집의 대들보는 삼나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노송나무에서 격천정을 만든다.

TLA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푸른 풀은  
우리들 신혼의 침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삼나무의 그림자에  
우리들 사랑의 둥지를 놓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예로 답관체 시의 예를 보자.

RV60은 이렇게 번역하였다.

1. 나는 그의 노여움의 채찍 아래서 슬픔을 본 남자이다.
2. 그는 나를 광명으로가 아니라 암흑으로 인도했다.
3. 확실하게 그는 나에 반대하여 돌아섰다.
  
4. 나의 몸과 피부를 나이 들게 하였으며; 나의 뼈를 부숴버렸다.
5. 나에 반대하여 성체를 짓고 나에게 쓴맛과 노역으로 둘러쌌다.
6. 마치 오랫동안 이미 죽은 시체처럼 나를 어둠 속에 버려두었다.
  
7. 모든 방면에서 나를 포위하였으며 나는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나의 죄사슬은 나를 가장 무겁게 만들었다.
8. 심지어는 내가 애원하고 목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9. 세공한 돌로 나의 길을 막았으며 나의 길을 꺾었다.
10.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복하고 기다리는 꿈이거나 숨어 있는 사자였다.
11. 그는 나의 길을 꺾었고 나를 산산조각 가루로 냈으며 나를 황폐하게 하였다.
12. 그는 활을 쏘았으며 나를 그 화살을 위한 표적으로 삼았다

TLA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1. 내가 하나님의 무거운 징벌을 받은 그 사람이다.

2. 그는 나를 강제로 가장 어두운 길로 걸어가도록 하였다.

3. 나를 징벌하지 않은 단 한 순간도 없다.

4-6 어두운 무덤이 나의 길이다;

마치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벽하게

처참한 비참함에

빠지게 내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힘없게 만들었으며;

나는 단 하나의 건강한 뼈도 갖고 있지 않다.

7-9 비록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한다.

매 발걸음마다 나와 부딪치고

내가 길을 잃도록 한다.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나를 쇠사슬로 묶는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다!

10-12 나는 그의 공격의 대상이다.

나는 그의 화살의 목표물이다!

마치 광포한 동물이 공격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나를 감시하는 것처럼.

나를 방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나를 강제로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

13-15 하나님은 이제 나의 심장을

그의 무서운 화살로 못 받았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슬픔과 비통함으로 채웠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 조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전한 장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바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4-6 어두운 무덤이 나의 삶이다;...

7-9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한다;...

10-12 나는 그의 공격의 대상이다;...

- 13-15 그는 나의 심장을 쪼개었다...
- 16 나는 철저히 ... 되었다
- 19 가장 슬픈 기억들...
- 22 우리들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음을 안다...
- 25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청한다...
- 28 침묵을 지키는 것이 편리하다...
- 31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 34-36 인권을 유린하는 것...
- 37 이것을 잘 들어라; 아무것도 ... 할 수 없다
- 40-42 만약 하나님에 반대하여 죄를 짓는다면,...
- 43-44 하나님을 둘러싼 하나의 구름;...
- 46 우리는 적의 놀림감 이었다...
- 49-51 고통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은 진정으로 가슴 아프다...
- 52-53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였다,...
- 55 이 연못의 가장 깊은 곳에...
- 58 너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았지,...
- 61 그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지를 너는 알 것이다;...
- 64-66 그들을 징벌하는 것을 나는 기대한다...

나는 고통 받는 중

## 9. 문화도 번역된다.

TLA에서 우리는 사회과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는 숨어 있거나 또는 왜곡되었을 상징 또는 의미를 보여주는 문화 인류학의 도움을 받으려고 가능한 모든 것을 하였다.

### 9.1. 마태복음 5:13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은 지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을 때, 지중해 문화의 상황에서, 예수의 모든 청중들은 땅의 의미를, 그러한 말의 그리스 상황으로가 아니라, 땅의 용광로라는 아람어 사용으로 이해하였다. 아람어의 땅이라는 말은, 예수의 청중들에게 있어서, 지구 또는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화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화로의 종류에서, 소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만약 소금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사황이 걸린 것이었다. 그것은 7-9세 나이의 어린 소녀들의

일이었다. 이외에도 소금은 땅의 활로가 있는 층을 덧칠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였다. 그리하여 연료가 훨씬 더 잘 타고 그래서 보다 집중적으로 화로가 더 잘 불붙고 잘 타게 하는 화학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두꺼운 층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소금은 연료들이 오랫동안 불붙여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더워지면서, 소금은 촉매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 누가복음 14:35를 예수의 문화적 상황에 아주 밀접하게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땅을(다시 말해, 화로를 위해서도) 위해서도, 비료로도(다시 말해, 배설물로 만든 공을 위해서도) 유용하지 않으며, 단지 버려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수의 청중이 인식하는 가르침과 이미지는 우리들의 것과 아주 다르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땅의 화로를 사용하지 않기에 소금은 촉매제의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화학적 청소, 정화제, 보존제, 심지어는 약의 기능을 갖는다. 만약 우리가 예수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면, 이 비유의 가르침은 아주 다른 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TLA는, 예수님의 가르침 배경에 있는 문화적 측면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마태복음 5:13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당신들은 불이 더 잘 타기 위해 화로에 뿌리는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다. 만약 소금이 이러한 성질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으며,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아 짓밟겨 버릴 것이다.

예수와 그의 청중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땅의 화로를 위한 소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불타오르는 복음의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이다.

## 9.2. 누가복음 11:5-8<sup>1)</sup>

그들에게 또한 말하기를: 당신들 중에 누가 친구가 있어서 한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빵 세 개만 빌려주게. 왜냐하면 한 친구가 나를 방문하였소. 그런데 그에게 줄 빵이 없소. 다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네. 나의 아이들은 침대에서 잠자고 있으며, 나는 일어날 수 없다네. 당신들에게 말한다. 비록 그 빵을 그의 친구에게 주기 위해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귀찮음

1) 이어지는 글에 대해서는, Kenneth Bailey, *A poesia e o campones: uma analise literaria-cultural das parabras em Lucas*, Edicoes Vida Nova, San Pablo, 1985, 103-116을 보라.

으로 인하여 빵 주인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친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RV60).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는 귀찮음(importunidad)이다. 여러 가지 번역본들과 사전들은 귀찮음(anaideian)이라는 그리스어를 이렇게 번역한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이 말은 부정적 의미로 수치심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긍정적 의미의 \*끈질김으로는 이해하지 않는다. 칠십인 역에서도 이 말을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요세푸스(Josefo)도 그의 저작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서 부정적 의미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다. 기도의 주제라는 상황에서 이 비유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어 귀찮음(anaideian)이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로 번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끈질김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RVR에서 귀찮음이라는 단어의 출현은 라틴 전통의 영향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비유를 문학적 환경에 배치해 연구해 보면, 그리스어 anaideian(귀찮다)의 의미는 귀찮음도 끈질김도 아니다. 성서 본문은 친구 또는 이웃이 얼마나 끈질기거나 또는 무례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이웃은 문을 두드리거나 떠나지도 않았으며 무엇을 끈질기게 신청하지도 않았다.

비유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명예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받는 사람의 명예가 문제 된다; 균형 있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 점을 보다 자세한 방식으로 그리고 1세기 동부 지중해 문화의 상황에서 보자.

비유는 “당신들 중 누가”라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문학적 상황에서, 질문은 부정적 응답을 기대한다. 그 질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당신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 한 밤중에 당신 이웃을 방문하여, 한 친구를 채워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누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겠느냐? 친절이 아주 귀중한 예의인 동부의 상황에서, 청중은 잠자는 사람이 말한 종류의 변명을 상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문이 닫혔다거나 또는 나의 아이들이 잠들고 있다는 것은 친절이 위기에 있을 때, 이러한 변명은 참으로 우스운 것들이다. 만약 롯(창 19:1-11)과 같은 사람 또는 벤자민의 가바의 노인(삿 19:16-26)이 되려는 어떤 행동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변명은 우스운 것이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밤에 이웃이 방문하는 것은 사막 지역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가르쳤던(갈릴리)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역에서는 좀 이상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해, 친구가 갑자기 도착했다. 주인이 친구를 받아들였을 때, 비록 방문객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그 지역의 접대 관습은 주인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방문객에게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록 한밤중이지만, 큰 잔치와 비슷한 것을 제공해야 했다. 방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들에서, 일반적인 기준은 방문객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창 18:1-8에 나타나는 세 명의 방문객에게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엄청난 양의 빵과 고기를 기억해보라) 이러한 이유로 주인은 일어나서 이웃에게 단순히 하나만이 아니라, 세 개의 빵을 요구한다.

전문가의 정보와 일치하여, 예수 시대 팔레스타인 농촌 생활에 정통한 사람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날 오후 잠자는 이웃은 빵을 구웠고 그리고 1주일 이상을 위한 충분한 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구운 빵의 냄새 이외에도, 실제로 그 냄새를 마을의 모든 사람이 맡았으며, 마을의 여자들은 빵을 만들고 굽는 일을 도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주인은 그의 이웃이 가지고 있던 빵의 양식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확실히 갖고 있었다.

친구의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 그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주인의 행동은 동부 지중해 문화에 익숙한 결정으로 응답하였다. 방문객은 한 개인의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손님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잠자는 이웃을 방문하면서, 주인은 모든 마을의 이름으로 방문객의 주인으로서의 그의 의무를 완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웃은 실제로 저녁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를 요구하고 있었다. 동부지역에서는, 빵은 빈대떡 형태로, 공동식사의 주식을 먹기 위한 숟가락 또는 포크의 기능을 하였다. 음식을 먹기 위한 도구로서 빵을 사용하려는 행동은 (이를 통해) 음식은 더러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빵 조각을 항상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8절(\*일어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이 끝나는 구절은 주인이 잠자고 있는 이웃 또는 마을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일련의 물품들이 무엇인지를 추론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좋은 쟁반, 가장 좋은 컵 등이다. 주인은 확실히 그의 방문객에게 주기 위한 충분한 빵 이외에도 다음의 물품들을 갖고 있었다: 올리브유, 소금, 국수, 반죽, 계란, 꿀 그리고 기타. 주인이 그의 이웃에게: 그에게 줄 것이 없다(6절)는 말의 행태는 마을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방문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과 함께, 누가복음 11:5-7에서 말한 것은 보다 분명하다. 예수는 확실히 부정적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한다. 당신들은 다음을 상상할 수 있다. 한 친구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방문객을 받을 것을 동료에게 요구한

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웃들이 잠자고 있고 문이 잠겨 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을 제시한다. 공동체의 절대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지역 청중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리라: 단호하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다. 닫힌 문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아니며 만약 아이들이 깨더라도 곧 다시 잠든다.

대답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우스운 어떤 것으로 상상한다면, 8절의 동사 *anaideian*의 의미는 의심의 여지없이 잠자는 이웃을 가리키지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귀찮음은 건방짐으로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TLA는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한 밤중에, 너희들 중 한 사람이 한 친구 집에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웃이여, 제발 세 개의 빵을 빌려다오. 나의 친구가 여행에서 나를 찾아왔고, 나의 집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한 이웃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가정하자.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문은 열쇠로 잠겨 있고 나의 가족과 나는 잠들어 있다. 따라서 빵을 주기 위해 일어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 계속 요구한다면, 결국에는, 친구가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이것은 그가 그의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을의 수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번역은 비유가 주는 문화적 상황을 상정한다. 이웃은 만약 그의 친구에게 주인이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다면, 그는 다음날 아침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마을의 일대 수치라고 한탄하는 저주의 함성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이 강독에서, 이 구절의 교훈은 만약 한 인간 존재가 부끄러움의 긍정적 의미에 의하여 명예스러운 행동을 보여 준다면,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귀중한 이유인가를 알게 된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인간 존재의 행동에 대하여 명예의 가치와 수치의 원칙으로 응답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Abstract>

## **The TLA (Contemporary Spanish Version/The Bible in Simple Spanish): The Scriptures Without Unnecessary Mediators**

Dr. Edesio Sánchez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nsultant)

The very diversity of literary genres, languages and dialects, of styles peculiar to each biblical author, of traditions, theologies, etc., is convincing confirmation that our one God affirms unity in the midst of diversity. Accordingly, an extremely valuable lesson found in the Bible is that the very diversity that shapes it serves as a powerful argument to affirm that Bible translation cannot be a translation tied to any source language even if they are the so-called “original languages” (Biblical languages). A faithful translation is a translation that takes all that diversity and makes the best use of it to communicate the message of the Bible in the most natural way of the receptor’s language.

A true and faithful translation of the Bible is one that successfully omits all unnecessary mediation between the people who receive it and God, the original source of this Word. For this reason, a superior translation will not bind the recipient to the text’s original form, nor to an ancient version of centuries past, nor to the version ‘authorized’ by a certain denomination’s doctrine or confession. The recipient should have free access to the divine message; he or she should possess it, savor it, and love it. After all,

[M]ission as translation makes the bold, fundamental assertion that the recipient culture is the authentic destination of God’s salvific promise and, as a consequence, has an honored place under “the kindness of God”, with the attendant safeguards against cultural absolutism.<sup>2)</sup>

The UBS motto states “God’s Word, in a language people understand, at a price they can pay and in the most adequate format.” Indeed, the principal reason for the

---

2)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Maryknoll, N.Y.: Orbis Books, 1989), 31.

existence of our organization is to spread God's Word to all people in their native tongue. This is so that each man and woman, child, young person, peasant, laborer, student, etc., has the opportunity to approach the Scriptures and therefore God, without having to navigate through the mediation of second languages and foreign world-views and theologies injected from the outside. Every time the Word of God is translated into a new indigenous language, we are honoring the spirit of God's saving plan (see Joe 2:28-29).

If our indigenous Lati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if our children and young people are going to be the authors of their own liberation, then we must do all tha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God's Word is delivered directly to them.